



미원주민 주일

헌금 전 이야기



열린 가슴. 열린 마음. 열린 문.
한인연합감리교회®

미원주민 주일

헌금 전 이야기

개 교회는 어느 주일이든 미 원주민 선교 주일로 지킬 수 있지만, 부활절 후 셋째 주일인 올해 4월 26일에 특별 헌금과 함께 이날을 지키는 것을 권장합니다. 본 자료는 온라인 예배 중 헌금의 도입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, 주보 속지와 예배 자료, 포스터를 연합감리교회 [특별 선교 헌금 페이지](#) 링크와 함께 미리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혹은 각 교회의 온라인 예배 영상에 링크를 포함하고 예배 중에 UMCgiving.org/giveNAMS를 통해 헌금하는 것을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종종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.

본 자료를 각 교회의 상황과 교우들의 예배 경험에 맞게 각색하여 사용하십시오. 함께 제공된 예배 자료의 [디지털 버전](#)을 교회의 소셜 미디어 계정이나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유인물로 배포하여 교우들이 이 특별한 날에 관해 생각하게 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. 함께 제공된 [설교 자료](#)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[어린이 자료](#)를 통해 예배의 모든 부분이 한 흐름 안에 있게 하십시오.

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으시는 이야기(눅 24 :13-35)에서 제자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. 그들과 함께 유하시길 간청한 후에,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앉아 떡을 떤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.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는 서로 나눔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.

Covid-19 사태는 그달 그달 살거나 기본적 필요를 위해 쌓아 놓고 살 수 없는 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. 남다코다주 화이트 스완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양크톤 수 (Yankton Sioux Tribe) 부족의 경우, 규모를 갖춘 가장 가까운 식료품점이 60-90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. 게다가 이 지역 사회는 금번 팬데믹의 영향을 받기 전에 2019 년에 발생한 홍수로부터 회복 중인 상황이었습니다.

오클라호마 원주민 선교연회는 이 부족이 필요한 음식과 물품들을 구매하고 위기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.

오늘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의 미 원주민 사역을 강조하고 기념합니다. 이를 비롯한



열린 가슴. 열린 마음. 열린 문.

한인연합감리교회®

미원주민 주일

헌금 전 이야기

교단적으로 동참하는 기회들을 통해 힘을 모을 때,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.

본 특별 헌금은 각 연회와 미전역의 미원주민 사역을 후원하며 미원주민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합니다.

작년의 예를 들면, 미원주민 선교 헌금은 다음과 같은 사역들을 지원하였습니다:

- 테네시 연회의 원주민 사역부가 진행한 3일간의 행사, “미원주민 주춧돌과 지역 상호작용”(Native American Rock and Community Interaction)을 후원하였습니다.
- 캔자스주 캔자스시티에서 진행된 내셔널 유스 2019행사(7/10-14, 제자사역부의 전미 유스 미팅)에, 오클라호마 원주민 선교연회 소속 25인의 원주민 중고등학생들 및 인도자들을 보내는 일을 후원하였습니다.
- 마지막 단계에 다다른 오클라호마의 치호와 연합감리교회(Chihowa UMC)의 새 성전 건축을 후원하였습니다.
- 유엔 토착민 이슈에 관한 영구 포럼(UN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)에 참가한 연합감리교회 대표단 13명의 여행 경비를 후원하였습니다

본 특별 헌금의 사용처에 대한 더 많은 정보:

<http://www.nacp-umc.org/native-ministries-sunday-grant.html>

우리가 보내는 미원주민 주일 헌금은 그들의 사역 가운데 미원주민 문화를 존중하고 기념할 신학생들을 준비시키는 데 쓰일 것입니다.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지역 사회를 섬길 새롭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찾도록 교회들에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. 오늘 UMCgiving.org/giveNAMS를 통해 후원하세요.

같이 기도합니다. 창조주 하나님, 연합감리교회 미원주민 사역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.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써, 이 예물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리라는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나눕니다. 이 예물에 복 내려주시고,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. 연합감리교회를 통해 이 물질을 흥왕케 하시고,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고 변치 않는 임재가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도록 또 확장되도록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

열린 가슴. 열린 마음. 열린 문.

한인연합감리교회®